

##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예술제 '그라제' 연다

광주광역시예술의전당은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대극장, 소극장, 잔디광장, 갤러리 등에서 '제7회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예술의 울림(The Echo of Arts)'을 주제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공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며 마련됐다. 클래식·합창·국악·대중음악·퍼포먼스 등 총 9개 팀이 무대를 꾸미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축제의 첫 무대는 9월11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에서 열리는 세계적 합창단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 공연이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27년간 음악감독으로 활동한 독일 대표 합창단으로 80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무대는 지휘자 안드레아스 라이즈와 오르간·하프시코드 연주자 펠릭스 쇠헤어가 함께한다. 이어 9월12일 오후 7시30분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8회 정기연주회

9월 11~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소극장·잔디광장 등 광주세계양공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예술의 울림' 주제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합창단·광주시향·이승철 콘서트 등

가 대극장에서 열린다.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을 주제로 지휘자 이병욱과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협연해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같은 날 소극장에서는 서도밴드가 바다·벚꽃 노래·사랑가 등 국악과 팝을 결합한 조선편 무대를 선보인다. 9월13일 오후 7시30분부터 잔디광장 야외 콘서트가 펼쳐져 감성적인 싱어송라이터 권진아와 독특한 음색의 보컬리스트 정인이 감성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9월14일 오후 4시에는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이승철의 단독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대극장에서 열린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 '소녀시대', '네버엔딩 스토리', '마지막 콘서트' 등 대중의 사랑을 받은 명곡들을 록 스타일로 새롭게 재해석해 들려준다. 이와 함께 ▲창작국악그룹 그림의 판소리 동화콘서트 '자라는 자라' ▲DJ DiGi와 함께하는 키즈 디제잉 파티 ▲버블타이거의 비눗방울 매직쇼 ▲어린이 풀장 '첨벙첨벙' ▲어린이 양궁체험 '두근두근' ▲광주·전남수채화협회 전시 '빛이 흐르다'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운영팀 광주예술의전당장은 "올해 '그라제' 축제는 예술의 울림을 통해 시민과 세계가 함께 호흡하는 축제무대



가 될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 세부 일정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https://giart.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기자

## 강진군, 극단청자 뮤지컬 '푸른 혼' 공연

9월 2일 오후 2시,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연

창작뮤지컬 '푸른 혼'은 2025년 전남문화재단 공연장 협력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레퍼토리 작품으로, 극단 '청자'의 임재필 대표가 작품과 연출을 맡았다. 이번 공연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와 7시, 총 2회에 걸쳐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작품의 무대는 고려 후기, 고려삼강청자의 주생산지였던 탐진현 대구소(현 강진군 대구면)이다. 전란 속에서도 고려삼강청자를 지켜내려는 젊은 도공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끝내 그들의 의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안타까운 서사를 담았다. 임재필 대표는 "이번 작품은 모든 창작곡을 라이브 밴드의 연주로 선보이고, 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이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고려청자의 세계적 위상을 깨어-컬쳐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현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연은 약 90분간 다채로운 장면 퍼포먼스와 노래가 이어지며, 서울 대학로 뮤지컬계에서 실력파로 알려진 황려진 배우가 주연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강진원 강진군은 "이번 창작뮤지컬



은 지역 극단과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1만 원이며, 예매는 극단 청자(061-433-1101, 010-3544-3328)를 통해 가능하다. 강진원 강진군은 "이번 창작뮤지컬" /강진/손경설 기자

## 9월 독서의 달...ACC, 북토크·낭독 등 문화행사 '풍성'

9월 2일~10월 12일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북토크·도서관화전·'혼모노' 도서낭독공연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북토크, 도서관화전, 도서낭독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8일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열리는 북토크 행사에는 한국 SF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초엽 작가가 ACC를 방문해 자신의 책 '행성어 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행성어 서점'은 장애와 혐오, 환경 파괴와 같은 동시대 문제의식을 안은 채 우주적 세계로 향하는 14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초엽 작가는 지난 2017년 단편소설 '관내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양면의 조개껍데기', '아무튼, SF 게임', '파견자들', '트레모사', '원통 안의 소녀' 등 많은 작품들로 대중의 사랑을 받

고 있으며, 제43회 오늘의 작가상, 제11회 젊은작가상, 제62회 한국출판문화상, 제34회 은하상 최우수외국작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북토크와 연계해 열리는 도서관화전에서는 최인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행성어 서점' 책 속의 다양한 원화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최인호 일러스트레이터는 초현실주의 그림으로 주목받는 신예 작가로, Dion Choi(디온 최)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도서관화전은 오는 9월 2일~10월 12일 ACC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열리며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성해나 작가의 '혼모노'를 원작으로 하는 도서낭독공연이 오는 9월 27일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ACC에서 열린 첫 도서낭독공연 후 재공연에 대한 요청이 이어져 ACC는 올해도 '혼모노' 도서낭독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혼모노'는 지난해 이효석문학상 및 제1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인 베스트셀러 소설로 박수무당 문수가 몸주모 모시던 장수 할매가 신에게에게로 옮겨 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무숙'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신 앞에 선 인간의 믿음과 불신, '진짜와 가짜'에 대한 진정성을 질문한다. /전혜경 기자



북토크와 도서낭독공연은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ACC 도서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책을 접하고, 색다른 독서문화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화순군문화관광재단, 8월 30일 '가을 재즈 페스타' 개최

남산공원에서 펼쳐지는 낭만적인 재즈 한밤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구복규)은 8월 30일(토) 오후 7시~ 9시까지 화순 남산공원 야외무대에서 '가을을 기다리며 재즈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초 7월 26일 개최 예정이던 화순 남산공원 로컬컬 프로젝트 '별 헤는 여름밤'의 일정을 연기하여 오는 8월 30일(토)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여름의 끝자락에서 다가오는 가을에 걸맞은 감성적인 재즈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별 헤는 여름밤'의 감성을 이어가되,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힐링의 시간이 기대된다. 특히, 최근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화순 남산공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대표 문화공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야외 공연무대에서 진행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구종환 대표이사는 "수해 피해로 7월 예정이던 '별 헤는 여름밤'의 연기는 아쉬웠지만, 더 나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재탄생한 만큼 재즈의 선율과 함께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http://www.fbo.or.kr)